研究論文

『문통(文通)』의 계통 연구

구록(句錄)과 문록(文錄)을 중심으로

김덕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선임연구원, 한국한문학 전공

kds2691@aks.ac.kr

Ⅰ. 머리말

Ⅱ. 「구록」 이본의 계통과 특징

Ⅲ. 「문록」 이본의 계통과 특징

Ⅳ. 『문통』 전체 구성에 대한 시론

Ⅴ. 맺음말

Ⅰ. 머리말

‘문통(文通)’이라는 서명은 ‘문헌의 통칙’, 혹은 ‘고금의 문물 ·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고찰’이라는 뜻이다. 자기 저술의 총집을 ‘문통’이라 명명한 데서 서파(西陂) 유희(柳僖, 1773-1837)의 학문적 지향과 자부심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서파는 자연과학, 경학, 훈고학, 사학, 예학, 어문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찬했고 그 과정에서 축적한 학문적 조예를 『문통』이라는 저술을 통해 피력하였다.

일찍이 담원(薝園) 정인보(鄭寅普)에 의해 서파라는 인물의 학문적 성취와 『문통』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알려졌다.[1] 그러나 세간에 전해진 몇 종의 전적을 제외하고는 그 존재 자체가 묘연했던 탓에 국어학이나 여성학 등 한정된 분야에서 주목을 받았을 뿐이다. 그동안 『문통』을 소장해오던 유희 후손가는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문통』을 기탁했고 이를 계기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으며 다양한 연구 성과가 보고되었다.[2]

방대한 분량의 『문통』은 초고본과 교정본, 전사본 등이 뒤섞여 있고 그 체재가 정연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질의 구성과 각 책 간의 선후 관계 및 상관성을 밝히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문통』의 계통이 밝혀져야 그 자료적 가치와 활용성이 비로소 배가되고 아울러 한층 심화된 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1) 정인보는 1931년 2월 23일자 《동아일보》에 「조선고서해제」를 게재하며 서파의 학문과 저술을 상세히 소개하였다(정인보, 『담원 정인보전집』 6권, 연세대학교출판부, 1983). 이 밖에 미정고 『문통』 편차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등 정인보는 서파의 학문과 저술을 소개하는 데 깊숙이 관여하였다.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는 2014년 7월부터 ‘오천 년간 조선의 얼, 오늘을 물으시다’라는 제목하에 기획전을 열어 정인보 후손가에 소장된 유품과 문헌, 연세대학교에 기증된 다양한 자료를 소개했는데 정인보가 친필로 권차를 매긴 『문통』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2) 서파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김근태의 「서파 유희의 시문학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를 꼽을 수 있다. 김근태는 이 논문에서 『문통』의 체재와 서파의 생평, 학문경향 등을 서술한 뒤, 서파가 견지했던 한시관과 시세계의 특징에 대해 언급하였다. 김근태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 성과는 이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생략한다. 2013년에는 진단학회와 한국어문학연구소의 주관하에 ‘『문통』의 종합적 검토’라는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한문학, 국어학, 천문학, 경학 분야의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었다. 당시의 논문들은 『진단학보』 제118호(진단학회, 2013)에 수록되었는데, 이 가운데 서파 문학의 특징과 학문적 연원을 치밀하게 논증한 심경호의 논문은 주목을 요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서파의 한시집 「구록(句錄)」과 산문집 「문록(文錄)」을 대상으로 여러 이본의 계통과 특징을 고찰한 뒤, 서파와 그 후손 유근영(柳近永)이 구상했던 『문통』의 전체 체재에 대해서도 거칠게나마 검토해보겠다. 일차적으로 「구록」과 「문록」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수록 작품의 양이 가장 방대하고 그 체재가 복잡하므로, 여기서 도출한 결과와 방법론을 서파의 여타 저술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통해 서파 친필 교정본의 가치가 부각되고 서파의 저술이 보다 정연하게 정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구록」 이본의 계통과 특징

1. 이본 현황과 계통

서파는 "희로애락 느낄 때마다 시를 지으니, 하늘이 내게 준 건 오직 시 짓는 흥취뿐(喜怒悲歡輒有成, 天公賦我但詩情)"[3]이라 자술할 만큼 시편 제작에 몰입했다. "시를 읊조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나니, 일생을 늘 시비 속에서 살았네(萬事更無吟咏外, 一生長在是非中)"[4]라는 표현은 서파의 고단한 삶과 시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파는 자신의 시집을 '방편자구록(方便子句錄)'이라 명명했고[5] 시기 순서에 따라 15개의 시록(詩錄)을 만들었다. 모친을 위한 병구완과 시묘살이에 힘쓸 때(1819-1822)를 제외하고는 16세부터 65세까지 50년 동안 부단히 한시를 창작했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시록에 정리했다.[6]

---

3) 『方便子句錄』, 「否翁集」, 〈獨窩八咏〉 · 其一 수련.

4) 『방편자구록』, 「비옹집」, 〈如京師不至而復〉 함련.

5) 方便子는 서파의 자호이고, 句錄의 '句'는 韻이 있는 句語라는 뜻이다. 李守默, 〈句有六集序〉(『방편자구록』, 「句有六集」). "方便子者何? 晉人柳儆自號也. 句錄者何? 句語之有韻者, 隨得輒錄, 故曰句錄." 서파의 문집 중에 '방편'의 함의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데, 필자의 우견으로는 '방편'은 '便宜'의 뜻으로 세속의 영욕과 득실, 시비 등에 얽매이지 않고 순리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서파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여겨진다. 서파가 28세 때 지은 시편 가운데 "이른바 고상한 선비가 가장 어리석은 법이니, 득실과 영욕일랑 순리에 맡기는 게 낫지 않겠나!(所謂高士最大癡, 不如得失榮辱隨便宜)"가 보인다. 『방편자구록』, 「관청농부집」, 〈蘇黃文字有薄薄酒者以慰貧賤 語非不佳 但謂勝茶湯欲飮兩鍾 未免有計較豊約之累 今戲爲二篇以洒之〉 中.

6) 표1은 김근태, 앞의 논문 참조.

표1-『방편자구록』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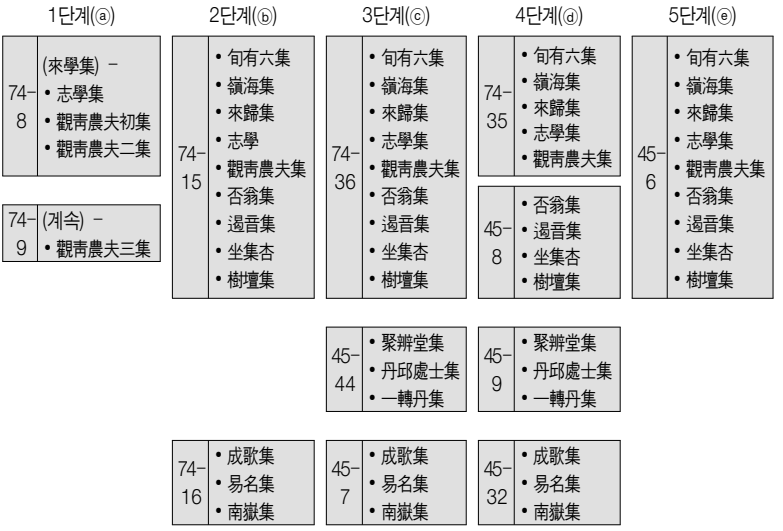
시록명	수록 시기	연령
旬有六集	1788-1793	16-21세
嶺海集	1794. 02-1795. 02	22-23세
來歸集	1795. 03-1796. 07	23-24세
志學集	1796. 07-1797. 02	24-25세
觀靑農夫集	1797. 02-1798. 12	25-26세
否翁集	1799. 01-1800. 06	27-28세
遏音集	1800. 06-1801. 12	28-27세
坐集	1802. 01-1805. 02	30-33세
杏樹壇集	1805. 03-1807. 02	33-35세
聚辨堂集	1807. 03-1809. 03	35-37세
丹邱處士集	1809. 04-1815. 09	37-44세
一轉丹集	1815. 09-1819. 05	44-48세
成歌集	1823. 12-1825. 02	52-54세
易名集	1825. 02-	54세-
南嶽集	1835. 03-	64세-

장서각에 기탁된『문통』중에서 서파 한시를 싣고 있는 것은 총 12책이다. 각 책의 크기와 지질, 서체와 묵적, 작품의 차제, 수록 내용과 기간, 시편의 교정과 반영 여부, 작품의 산삭과 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2책의 한시집을 5종의『방편자구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표2에서 살필 수 있듯이 완질본이 2종(ⓒ, ⓓ)이고, 나머지 3종은 낙질본이다. 5종의『방편자구록』은 각각 다섯 단계를 거치며 작성된 것인데, 앞의 2종(ⓐ, ⓑ)은 서파가 손수 편집하며 교정·산삭한 책이고, 뒤의 3종(ⓒ, ⓓ, ⓔ)은 100년 남짓 흐른 뒤 증손 유근영의 주도하에 ⓑ본을 저본으로 옮겨 적은 책이다.

먼저 서파의 친필 교정본을 살펴보겠다. ⓐ본은 셋째 시록「내귀집(來歸集)」후반부부터「지학집(志學集)」(권4),「관청농부집(觀靑農夫集)」초집(初集, 권5)·이집(二集, 권6)·삼집(三集, 권7)까지를 싣고 있는데 현전하는 구록 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다. 그러나 아쉽게도 권1-권3과 권8 이하가 남아 있지 않은 탓에 서파 한시의 원형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본의 가장 큰 특징은 서파가 자편 시고(詩稿)를 대폭 수정하며 산삭 여부를 표시했다는 점과 타인의 비평이 육필로 적혀 있다는 점이다.

표2-『방편자구록』 이본의 계통



ⓑ본 역시 서파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본에 적힌 수정 사항과 산삭 내용, 타인의 비평 등을 반영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도 작품의 산삭 여부 표시를 위시하여 자구를 퇴고하거나 작품의 차서를 변경한 흔적이 다수 나타난다. ⓐ본에 비해 수록 작품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시편의 제목이 수정된 경우도 상당량에 이른다. ⓑ본의 경우도 「취변당집(聚辨堂集)」, 「단구처사집(丹丘處士集)」, 「일전단집(一轉丹集)」이 정리된 구록이 일실되었다. ⓑ-2의 마지막 시록, 「남악집(南嶽集)」의 맨 끝에 수록된 한시가 1836년(헌종 2) 9월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7] 해당 시록의 후반부는 동년 9월부터 서파가 사망한 1837년 2월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의 표지 이면에는 '방편자구록목록(方便子句錄目錄)'이라는 제목하에 다음 내용이 적혀 있다.

卷之一 旬有六集 (戊申己酉庚戌辛亥壬子癸丑)
嶺海集 (甲寅乙卯)

7) 〈元朝遣懷〉에 "己下丙申"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고, 시록 마지막에 수록된 〈獻陵途中〉의 승구에 "중양절의 산 빛깔이 그림 속에 살아 있구나(重陽山色畵圖生)"라는 표현이 보인다.

표3-『방편자구록』 ⓐ본 · ⓑ본의 개황

구분	표제	권수제, 권차	시목명	시기 표시	비고
ⓐ-1 74-8	文通卷之八		【來歸集】중간-		
		方便子句錄卷之四	志學集	起丙辰七月盡丁巳二月	
		方便子句錄卷之五	觀靑農夫集初集	起丁巳三月盡一年	趙批靑, 呂批紅
		方便子句錄卷之六	觀靑農夫集二集	起戊午正月日課盡五月	
ⓐ-2 74-9	文通卷之九	-계속	-계속	-계속	
		方便子句錄卷之七	觀靑農夫集三集	戊午六月盡一年月終	李三一先生潤身批
ⓑ-1 74-15	文通卷之十四	方便子句錄卷之一	旬有六集	起戊申止癸丑年	
			嶺海集	起甲寅二月止乙卯二月	
		方便子句錄 卷之二	來歸集	起乙卯三月止丙辰七月	
			志學集	起丙辰七月止丁巳二月	
		方便子句錄 卷之三	觀靑農集集	起丁巳二月盡戊午一年	※ 初·二·三集 구분 ※ 표지 이면: 句錄目錄
		方便子句錄 卷之四	否翁集	起己未正月止庚申六月	
		方便子句錄 卷之五	遏晉集	起庚申六月盡辛酉一年	
		方便子句錄 卷之六	坐集	起壬戌正月止乙丑二月	
			杏樹壇集	起乙丑三月止丁卯二月	
ⓑ-2 74-16	文通卷之十六 (已抄)	文通詩錄	成歌集	起癸未十二月止乙酉二月	
			易名集	起乙酉二月	
			南嶽集	起乙未三月	

卷之二 來歸集 (乙卯丙辰)
志學集 (丙辰丁巳)
卷之三 觀靑農夫初集 (丁巳)
卷之四 觀靑農夫二集 (戊午)
卷之五 觀靑農夫三集 (戊午)
卷之六 否翁集 (己未庚申)

ⓐ본을 저본으로 ⓑ본을 작성할 무렵, 「순유육집(旬有六集)」부터 「부옹집(否翁集)」까지 그 구성의 아웃라인을 메모해둔 것이다. ⓑ본 작성에 착수할 때까지는 ⓐ본의 체제에 따라 「관청농부집」을 초집과 이집, 삼집으로 분절하려 했으나 정작 ⓑ본을 만들 때에는 하나의 시록으로 통합하여 정리했다.

추후에 증손 유근영이 『문통』 간행을 염두에 두고 정사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본이다. 이 중에서 2차 교정본(ⓑ) 전체를 대상으로 교정이나 산삭 표시를 반영하지 않은 채 원고지에 그대로

표4-『방편자구록』 ⓒ본의 개황

구분	표제	표지 우측 상단	권수제, 권차	수록 시록
ⓒ-1 74-36	文通	詩一	方便子句錄 卷之一	旬有六集, 嶺海集
			方便子句錄 卷之二	來歸集, 志學集
			方便子句錄 卷之三	觀靑農夫集
			方便子句錄 卷之四	否翁集
			方便子句錄 卷之五	遏音集
			方便子句錄 卷之六	坐集, 杏樹壇集
ⓒ-2 45-44	文通	詩二		聚辨堂集, 丹邱處士集, 一轉丹集
ⓒ-3 45-7	文通	詩三	文通詩錄	成歌集, 易名集, 南嶽集

옮겨 적은 것이 ⓒ본이다. ⓑ본의 일실을 대비해서 그 복본을 만들어둔 것이다. 부족하나마 ⓒ본이 현전하는 덕택에 ⓑ본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일실된 ⓑ본에 수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취변당집(聚辨堂集)」, 「단구처사집」, 「일전단집」의 원형을 ⓒ-2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본의 경우, 한시의 시제(詩題) 위에 붓으로 점을 찍는 방식으로 수록 대상 작품을 표시해두었는데 이것을 반영하여 옮겨 적은 것이 ⓓ본이다. ⓓ본은 서파가 선발하고자 했던 작품을 모두 싣고 있으므로 가장 선본에 가까워 보이나 최종본으로 여기기에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1을 살펴보면 권1과 권2에 '영해집(嶺海集)'과 '지학집'이 구분되어 있지 않거니와 해당 시집에 관한 서문도 누락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권수제와 권차 표시도 순차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문통』 전체 구성과 정고본 작성 지침을 확정하지 않는 채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권1-권6(ⓓ-1, ⓓ-2)까지는 『방편자구록』의 권차이고 권15와 권16(ⓓ-4)은 『문통』 내에서의 권차이다.

시기적으로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본이다. ⓔ본은 ⓓ-1과 ⓓ-2를 한 권으로 합본한 책으로, 위에서 언급한 ⓓ-1의 오류가 바로잡혀 있거니와 ⓓ에서 수록한 작품을 일부 산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순유육집」부터 「행수단집(杏樹壇集)」까지 정리한 본만 남아 있을 뿐 「취변당집」 이하를 정리한 본은 전하지 않고, 전사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여 수정한 부분이 간헐적으로 눈에 띈다.

표5-『방편자구록』 ⓓ본 · ⓔ본의 개황

구분	표제	표지 우측 상단	권수제, 권차	수록 시록
ⓓ-1 74-35	文通	詩	方便子句錄 卷之一	旬有六集 ※ 嶺海集 구분 無
			方便子句錄 卷之二	來歸集 ※ 志學集 구분 無
			方便子句錄 卷之三	觀靑農夫集
ⓓ-2 45-8	文通	詩	方便子句錄 卷之四	否翁集
			方便子句錄 卷之五	遏音集
			方便子句錄 卷之六	坐集, 杏樹壇集
ⓓ-3 45-9	文通	詩 聚辨堂集 丹邱居士集 一轉丹集上		聚辨堂集
				丹邱居士集
				一轉丹集上
ⓓ-4 45-32	文通 卷之十六	一轉丹集 成歌集 易名集 南嶽集	方便子句錄文通 卷之十五	一轉丹集下, 成歌集
			方便子句錄文通 卷之十六	易名集, 南嶽集
ⓔ 45-6	文通	詩	方便子句錄 卷之一	旬有六集, 嶺海集
			方便子句錄 卷之二	來歸集, 志學集
			方便子句錄 卷之三	觀靑農夫集
			方便子句錄 卷之四	否翁集
			方便子句錄 卷之五	遏音集
			方便子句錄 卷之六	坐集, 杏樹壇集

2. 친필 교정본과 이본의 특징

1) 형태

1차 친필 교정본 ⓐ의 표지를 넘기면 시록(詩錄)이 아닌, '관상지상(觀象志上)'(十七則)이라는 권수제와 함께 천문학 관련 기술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리고 한 장을 또 넘기면 양면에 걸쳐 한시가 전사되어 있고, 다시 한 장을 넘기면 『관상지(觀象志)』의 내용이 이어진다. 이와 같은 패턴으로 두 장마다 한시와 여타 저술이 반복되어 나타난다.[8] 종이가 부족하자 이미 필사된 종이의 접힌 부분을 찢어낸 뒤 그 이면에 시편을 적는 방식으로 기존 지면을 재활용한 것이다. 1936년 《동아일보》에서 서파의 저술을 소개하며 "요새는 아무리 가난한 선비기로 글 쓸 조희쯤이

8) ⓐ-1에는 「觀象志」, 「周髀經章句釋」, 「律呂新書摘解」, 「樂律管見辨」이 실려 있고, ⓐ-2에는 「困得篇辨辨解」와 「見聞隨錄」이 실려 있다.

야 군졸하리요만은 이분은 손바닥만한 백지 한 조각이 새로와서 조각보를 모듯이 이모저모 부처 가지고 이 백여 권 책을 맨든 것을 보면 그가 평생에 얼마나 가난하였든 것은 짐작하기에 넉넉하다"[9]라고 쓴 기사가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다. 여하튼 ⓐ본의 경우는 책수로는 한 책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두 책 이상이 수록된 셈이다.

한편, ⓐ본을 살펴보면 수록 한시의 차서가 상당 부분 착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파 사후 어느 시점에 책의 장정이 손상되자 기존의 끈을 풀어내어 장정을 새로 고쳤는데 그 과정에서 본래의 편차에 착오가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관청농부집」의 삼집 뒷부분이 초집과 이집 중간에 불쑥 나타나고, 초집 후반부가 이집 중간에 삽입되었으며, 다른 시록에 실렸을 법한 작품이 「관청농부집」 사이에 차서되는 등의 착종이 생기게 되었다. 한시의 경우, 엉클어진 차서는 타본(他本)과의 대비를 통해 그 순서를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앞뒷면에 상이한 저술이 실려 있으므로 원본의 재편 작업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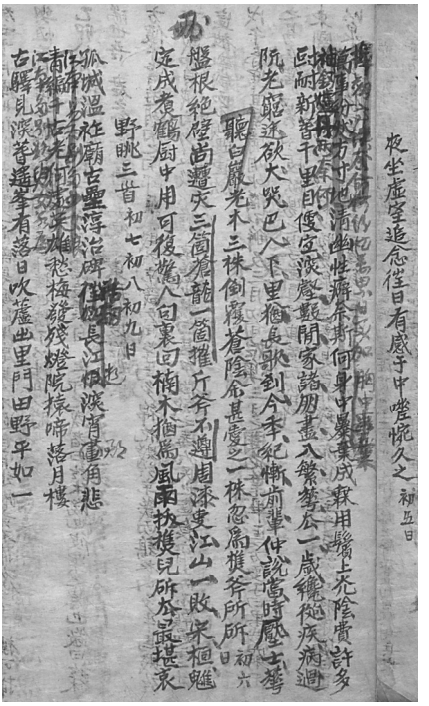
2) 수정과 삭제

전술한 바와 같이 서파는 ⓐ본과 ⓑ본에 손수 교정을 가했고 산삭 여부를 표시했다. 일부 시편에서는 한두 글자를 고치는 데 그치기도 했으나, 시제 전체 혹은 작품 전편에 수정을 가한 경우도 허다하다. 친필 교정본을 통해 시구의 수정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서파 한시의 특징 및 창작의 실제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본에 가해진 수많은 수정 사항은 ⓑ본에 그대로 반영되었거니와 ⓑ본에 적힌 수정 내용도 이후의 구록에 대부분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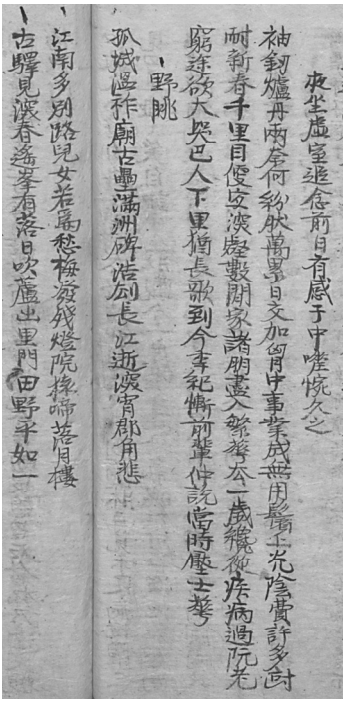
서파는 시제 위, 혹은 작품 상단의 서미(書眉)에 '存'자, '刪'자, '○', '丶', 'ㄱ' 등의 기호를 적음으로써 작품의 선발과 산삭 여부를 표시했다. 그리고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구절에 줄을 그은 뒤 행초의 서체로 수정을 가했고 작품의 차서가 맞지 않을 때에는 청색 먹으로 이동할 위치를 적시했다.[10]

---

9) 「窓戶紙 조각 褙에 '交通' 百餘卷, 柳僖의 鬪貧과 巨作」, 《동아일보》, 1936년 1월 1일자.
10) "移入農夫初集"과 같은 기술방식으로 시제 아래에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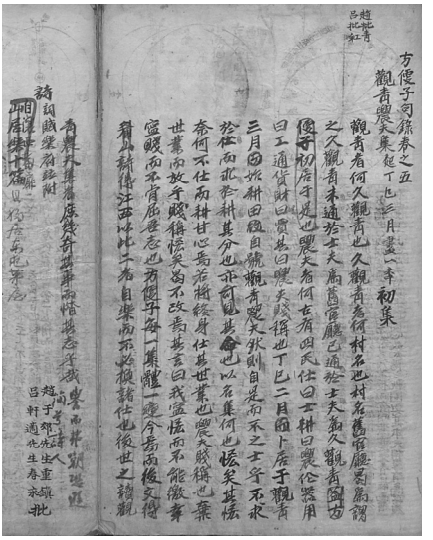
도1-ⓐ본 〈夜坐虛室……〉, 〈야조삼수〉 수록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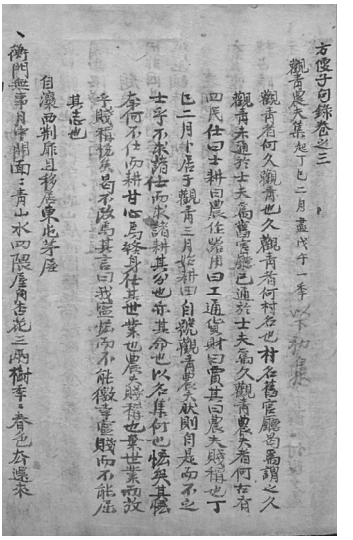
도2-ⓑ본 〈夜坐虛室……〉, 〈야조삼수〉 수록 부분

도1-도2를 참조하면 ⓐ본의 〈夜坐虛室 追念往日 有感于中 嗟惋久之〉【初五日】의 경우[11], 서파는 수련 상구의 "萬事紛然方寸地"라는 표현이 못마땅하여 처음에는 "携劍高談奈命何"로 고쳤다가 다시 "袖劍爐丹兩奈何"로 수정했으며, 수련 하구의 "淸幽性癖奈斯何"와 함련 상구의 "身中暴棄"도 각각 "紛然萬累日交加"와 "胷中事業"으로 수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수정 사항은 ⓑ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12] 〈야조삼수〉【初七初八初九日】의 두 번째 작품도 기구의 "靑編千古老"가 "江南易爲別"을 거쳐 "江南多別路"로 수정되었고, 함련의 "何處英雄愁"도 "多少女娘愁"를 거쳐 "兒女若爲愁"로 수정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수정된 표현은 ⓑ본에 그대로 수렴되었다. 한편, 산삭할 작품의 경우 ⓐ본에서는 시제 위에 'ㄱ'으로 표시한 뒤 작품 위에 '刪'자를 써넣었다. ⓑ본의 경우는 서미에 가한 ' ` ' 부호로써 수록 예정 작품을 표시하였다. 어지럽게 지우고 써 내려간

11) 呂春永이 가한 평점이 전편에 걸쳐 보이는데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기술하겠다.
12) 詩題의 '往日'도 ⓑ본에서는 '前日'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본을 작성할 때 고친 것이다.



도3-ⓐ본 「관청농부집 초집(觀靑農夫集初集)」 첫째 면



도4-ⓑ본 「관청농부집(觀靑農夫集)」 첫째 면

묵적을 통해 퇴고의 과정에서 서파가 기울였던 고심의 흔적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교정 대상은 시록의 서문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예컨대 「관청농부집」 서문에서는 시록명을 '관청농부'라 붙인 까닭을 설명했는데 서파는 췌언이라 생각되는 표현을 도3과 같이 삭제하였다.

특히 서문 후반부의 삭제된 세 줄은 "방편자는 매번 시문집을 낼 때마다 문체가 한 번씩 바뀌었다. 지금 이후로 문장은 미산(眉山)[필자주: 소식(蘇軾)]을 얻었고 시는 강서(江西)를 얻었으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스스로 즐겨야지 굳이 이것을 벼슬과 바꿀 필요는 없다. 후대에 '관청농부집'을 읽는 자는 그 일을 기이하게 여기며 그 뜻을 슬퍼할 것인가!"[13]이다. 비록 삭제되어 ⓑ본 이후에는 실리지 못했으나 서파의 문학적 지향점과 시문의 변모 양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14]

---

13) ⓐ-1, 「觀靑農夫集初集序」. "方便子每一集, 體一變. 今焉而後, 文得看山, 詩得江西, 以此二者自樂, 而不必換諸仕也. 後世之讀觀靑農夫集者, 庶幾奇其事, 而惜其志乎哉."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서파 한시 연구에서는 ⓐ본의 존재 양상이 전혀 인지되지 못했다.

3) 수록과 산삭 현황

서파가 친필로 교정한 ⓐ본과 ⓑ본에 공히 수록된 시록은 「지학집」과 「관청농부집」이다. 이 가운데 「지학집」을 대상으로 작품 수록 현황을 살펴보면 표6과 같다.

표6-「지학집」 수록 작품 현황

구분	ⓐ본	ⓑ본, ⓒ본	ⓓ본	ⓔ본
1	采蘭 1수	○	○	○
2	遵陸 1수	○	○	○
3	饞狗 1수	○		
4	讀中庸 1수			
5	採蓮曲 1수			
6	踰大華山 1수			
7	遇雨宿村舍口占一詞 1수			
8	玅喜菴壁上韻 1수	○	○	○
9	大霧 1수			
10	哭先墓 1수	○ 拜觀靑先墳		
11	望文英辭 1수			
12	招白鶴辭 1수			
13	秋夜寓懷 1수	○		
14	招靈君歌 1수	○		
15	自警詩十絕句 10수	○ 4수(六首佚)		
16	讀書 1수	○		
17	待故人不至二首 2수			
18	步出傞洞 1수			
19	夜赴尹仲和口占 1수			
20	小集仲和宅拈唐詩賦菊花五絕句 5수			
21	雪夜同從兄口呼 1수	○ 雪夜與從兄凡齋口號		
22	贈趙友章之 1수	○ 贈趙章之(冕鎭)		
23	觀理吟 1수			
24	曹友季仲宅分得家字留贈兪友希安 1수	○ 曹季仲宅得家字成古體留贈兪希安賀中泮試		
25	冬至日次邵子首尾吟七首 7수	○ 6수[15] 和邵康節首尾吟韻	○ 6수	○ 1수[16]
26	用尹仲和留示韻同朴星瑞從昆季賦風懷二首 2수	○ 2수 與朴星瑞從兄弟次韻尹仲和留示懷海西		
27	同朴友昆季亂抽劍南詩韻賦梅花雜題七首 7수	○ 1수 梅發憶故人		
28	夜同諸人射圃隱集韻仍步作聯句 1수	○ 眞峀夜集射韻圃隱集仍和作聯句	○	○
29	丙辰冬至後自京赴龍仁有感咏三篇 3수	○ 1수 悼四郎(聖方)		
30	朝起大雪喜次東坡叉字韻二首 2수	○ 2수 大雪和看山集叉字尖字		
31	木稼 1수			

32	和朴友韻 1수	○ 次韻朴星瑞		
33	月下散步 1수	○ 月下獨行	○	○
34	次白香山放言五首 5수	○ 5수 和韻效白香山放言	○ 2수	○ 2수
35	寄贈趙友章之昆季 1수	○ 寄贈趙章之兄弟	○	○
36	老勢 1수			
37	燒肉聯句 1수			
38	用林和靖韻胡澹菴體作梅花藏題詩八首 8수	○ 8수 用林和靖八梅韻效胡澹菴體		
39	除日 1수			
40	想像洞庭湖 1수	○ 想像洞庭湖	○	○
41	初七日立春 1수			
42	浪淘沙 1수			
43	上元二絕句 2수	○ 1수 上元夜		
44	觀野燒拈蓀谷韻 1수			
45	自太華山下步歸 1수	○ 太華山下步歸		
46	中和日 1수	○		
47	遣興 1수	○		
48	贈別朴星瑞 1수	○ 送客		
49	二月晦夜東風大雨窓戶盡破 1수			
50	騎牛 1수	○	○	○
51	無歷 1수	○		
52	衡門 1수			
계	52제 94수	31제 52수	10제 16수	10제 11수

ⓐ본 「지학집」에 수록된 한시는 52제 94수에 이르나, 이 가운데 31제 52수만 ⓑ본과 ⓒ본에 실리고, ⓓ본과 ⓔ본에는 고작 10제 16수와 10제 11수가 수록되었다. ⓐ본의 극히 일부 작품만 최종 정사본에 실린 것이다. ⓐ본과 ⓑ본을 비교할 때, 시제에 변화를 준 작품이 60%를 상회한다. 한시의 경우, 시제는 파제(破題)의 대상이거니와 작품의 정황과 정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므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다. 이에 간결한 제목 속에 함축미를 담기 위해 수정을 가했고, 시제 밑에 달았던 주석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다. 그러나 수정 이전의 시제는 작시의 시점과 배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므로 서파 한시를 이해하는 데 적잖은 도움을 준다. 한편, 〈자경시십절구(自警詩十絶句)〉(15번)와 〈동지일차소자수미음칠수(冬至日次邵子首尾吟七首)〉(25번)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

15) "凡二十餘首盡佚, 只存六首"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16) "凡二十餘首盡佚, 只存"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본인의 조감(藻鑑)을 거쳐 산삭할 작품을 제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으레 '○수가 일실되었다'라는 상투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관청농부집」 한시의 수록 현황을 살펴보면 「지학집」에 비해 작품 수의 편차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표7-「관청농부집」 수록 작품 수

구분	ⓐ본		ⓑ본, ⓒ본	ⓓ본	ⓔ본
계	觀靑農夫集初集	99제 142수	91제 101수 30%	68제 77수 23%	68제 76수 23%
	觀靑農夫集二集	113제 139수			
	觀靑農夫集三集	48제 53수			
	260제 336수				

ⓐ본에 실린 시편과 비교할 때 ⓑ본에 선발된 작품은 30%이고 ⓓ본과 ⓔ본에는 고작 20% 정도만 수록되었다.[17] 강서시(江西詩)를 학시의 전범으로 생각했던 서파는 전술한 것처럼 「관청농부집」을 기점으로 강서시법을 체득하게 되었다고 자술한 바 있다. 더욱이 20대 중반의 시기에 2년에 걸쳐 제작한 한시의 원형이 ⓐ본에 고스란히 수록되어 있으므로 ⓐ본의 존재는 서파 시문학을 연구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료이다.

서파는 ⓑ본에 누락된 한시를 첨지를 활용해 추록한 뒤 작품의 순서를 바로잡기도 했는데 이것은 ⓒ본 이하에 모두 반영되었다.[18] 다음 표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제에도 상당한 변화를 주었고, ⓑ본을 정리하며 추가로 시편을 제작하여 싣기도 하였다.[19] 한편 ⓓ본과 ⓔ본의 경우, 전사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부분도 가끔 보인다.[20]

---

17) ⓐ본에 수록된 한시가 수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지만 ⓐ본 역시 기존의 시편 중에서 가작을 엄선한 책으로 여겨진다. 1800년 정월, 서파는 지우 尹瀁을 그리워하는 시편의 말미에서 "3천 수의 시권을 꺼내 보니, 태반이 향수에 젖어 廣州를 말하누나"라고 읊조린 바 있다. 28세 이전에 지은 시편이 3천 수에 육박할 만큼 다수의 한시를 제작했다. 「否翁集」, 〈夢仲和〉. "一別無書歲又周, 夢中猶復舊靑眸. 提攜詩卷三千首, 太半鄕情說廣州."

18) 예컨대 서파는 ⓐ본에 실린 〈苦雨卽事〉가 ⓑ본에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는 시제를 '苦雨'로 축약한 뒤 해당 시편을 첨지에 써서 〈雨意〉라는 작품 뒤로 옮겨 배치하였다.

19) 애초에 〈雨〉라는 제목으로 2수의 한시를 지었으나 ⓑ본을 정리하며 1수를 더 제작해 도합 3수를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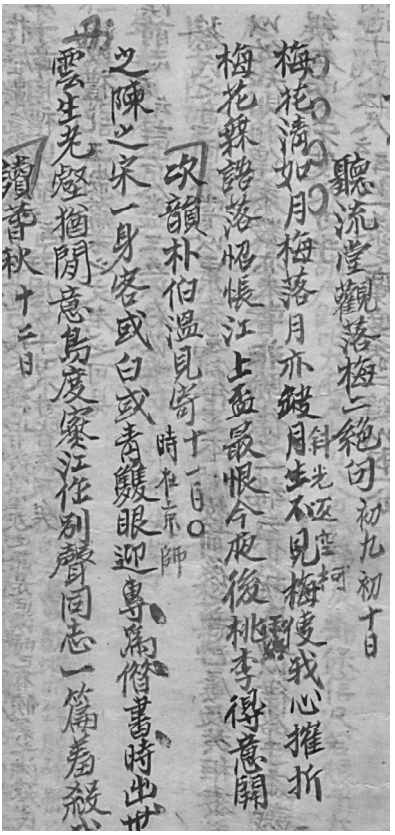
20) ⓓ본에 수록된 〈望哭李季軫持翼仍懷其兄燠卿持哲〉은 尹持翼의 성씨를 '李'로 잘못 옮겨 적었고, ⓔ본에 실린 〈聽流堂落梅二絶〉은 본래 오언절구 두 수로 이루어졌는데 필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작품처럼 행을 바꾸지 않고 연이어 옮겨 적어 한 수의 오언율시처럼 보인다. ⓐ본과 ⓑ본에는 예서체로 쓰인 글자가 다수 섞여 있는데, 예컨대 '列'을 '削'으로 잘못 옮겨 적은 것은 후대 전사자가 예서체를 오독한 경우이다.

표8-「관청농부집」 중 시제를 수정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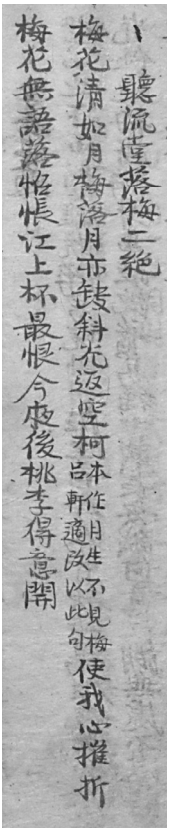
구분	ⓐ본	ⓑ본, ⓒ본
1	山居樂十篇 10수	自濮西荊扉且移居東屯茅屋 1수
2	遣懷 1수	蝸生
3	途中口號 1수	途中口占
4	雨意得俱字 1수	雨意
5	連雨次陳簡齋韻 4수	連雨書事簡齋韻
6	苦雨卽事 1수	苦雨 *첨지 수정(ⓑ)
7	遊上雲寺 1수	上雲寺
8	望江東二調(歎漸不見月) 2수	每夜登樓惜月色漸退(詞名望江東) 1수
9	西江月 1수	六月寒甚
10	呈李參奉潤身丈折柬 1수	寄呈李參奉潤身
11	夜飮梁友子三家梧樹下 1수	梁子三宅梧樹夜飮
12	贈別李友大哉 1수	贈別李大哉
13	九日臥病書懷 1수	九日書懷
14	守歲用后山韻 1수	守歲用后山韻同伯溫賦
15	聽流堂觀落梅二絕 2수	聽流堂落梅二絕 2수
16	上元夜不赴遊約追述長律一篇 1수	上元夜不赴遊約
17	讀山谷集作五律一首 1수	讀山谷集戲作一律
18	薄薄酒二章效蘇黃兩公 2수	蘇黃文字有薄薄酒者以慰貧賤語非不佳但謂勝茶湯欲飮兩鍾未免有計較豊約之累今戲爲二篇以洒之 2수
19	中和日次簡齋韻 1수	中和日次韻簡齋示鄭士艮
20	次朴星瑞昆季來訪不遇留題巖石韻 1수	和朴聖瑞昆季來訪不遇留題巖石韻
21	二月十五日月色明甚靜臥有感作一律 1수	二月十五夜月色明甚靜臥有思
22	方便子嗜酒而不能多飮 […] 效白香山體作三律 3수	效香山體三首 3수
23	示鄰人且以自述 1수	示鄰人且以寓歎
24	次韻謝無逸春社日詩追作 1수	春社日用謝無逸韻
25	十七日淸心樓次壁上韻 1수	淸心樓壁上韻
26	二十一日歸家追述作一律改拈金三淵韻 1수	神勒寺
27	夜坐書思 1수	夜坐書思示鄭士艮
28	記夢中奇遇 1수	夢中
29	寄士艮二絕句 2수	寄鄭士艮 1수
30	雨後贈尹仲和 1수	贈尹仲和
31	眞峀小池蓮花 1수	眞峀蓮池
32	觀漲瀑布 1수	聽白巖觀漲
33	秋懷示自笑子兼柬逍遙子 1수	送伯溫移家復歸兼柬仲和
34	呈李敎官 1수	寄呈李敎官
35	洗劍亭吟一律示同遊 1수	洗劍亭同朴伯溫賦
36	三角山雲臺 1수	三角山
37	中興寺 1수	中興寺尋金東峯舊居
38	農夫洗鋤歌秋社日作 1수	農夫洗鋤歌
39	九日登山是時雨霽以風 1수	重陽日雨霽以風
40	歲九十月之交白露爲霜 […] 遂占小詞以實之 1수	歲九十月之交白露爲霜 […] 遂占定風波一詞以實之
41	哀尹季軫仍懷其兄燠卿 3수	望哭尹季軫持翼仍懷其兄燠卿持哲 3수
42	贈別尹仲和西遊 1수	送別尹仲和西遊以西出陽關四字分韻得出字
43	夜會趙章之呼韻 1수	夜會趙章之

4) 한시 비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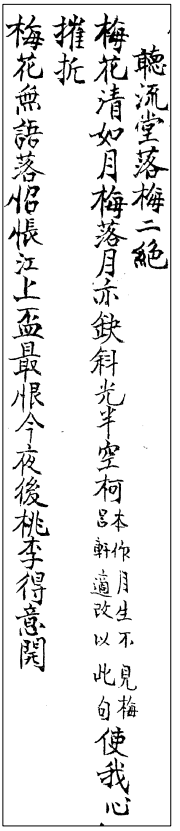
1차 교정본(ⓐ)과 2차 교정본(ⓑ)에 서파 한시에 대한 타인의 비평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당대인의 감식안을 통해 해당 작품의 풍격과 형식미를 연역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 「관청농부집」 첫째 면에는 서미에 "趙批靑, 呂批紅"라 씌어 있고, 첫 번째 작품의 시제 아래에는 "趙于郊先生重鎭, 呂軒適先生春永 批"라 씌어 있다. 즉, 우교(于郊) 조중진(趙重鎭)과 헌적(軒適) 여춘영(呂春永)이 각각 청색과 붉은색 먹으로 비평을 가했다는 뜻이다.[21] 조중진과 여춘영은 양근(陽根)과 신촌(新村)을 중심으로 활약한 소단(騷壇)의 맹주로서



도5-❶ 서파의 1차 친필 교정본에 수록된 여춘영의 교정과 평점 (ⓐ-1-439)



도6-❷ 2차 친필 교정본(ⓑ-266)



도7-❸ 추후의 전사본(ⓐ-1-439)

21) 여기서의 '批'는 評語를 활용한 비평, 批點과 貫珠를 활용한 評點을 병칭하는 개념이다.

서파의 존숭을 받았던 인물이다.[22] 조중진은 주로 가구(佳句)에 평점을 찍으며 시적 감식안을 드러냈고, 여춘영은 평점보다는 평어 비평에 치중하였다.[23]

도5-도7에서 볼 수 있듯이 ⓐ본에 실린 〈淸流堂觀落花二絶句〉를 감상한 여춘영은 기구의 "매화가 달처럼 맑으니(梅花淸如月)"에 관주를 쳤으며, 전구의 "달이 떠 매화가 보이지 않자(月生不見梅)"라는 표현을 지운 뒤 "빗긴 달빛이 텅 빈 가지로 돌아오자(斜光返空柯)"로 수정하였다. 이에 서파는 ⓑ본을 엮는 과정에서 해당 시구를 여춘영이 제안한 표현으로 교체한 후 "본래는 '달이 떠 매화가 보이지 않자'였는데 헌적 여춘영이 이 시구로 고쳤다(本作'月生不見梅', 呂軒適改以此句)"라는 주석을 달았다. 타인의 조감이 구록에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는 반증이거니와 타인의 육필 비평이 주석의 형태로 수용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본과 ⓑ본의 「관청농부집」을 대상으로 비평이 가해진 한시와 비평 항목 수를 정리하면 표9와 같다.

표9-「관청농부집」 수록 비평 개황

구분	ⓐ본		ⓑ본
관청농부집	관청농부집 초집	5수 대상 > 평어 비평 6건	1수 수록 > 비평 미수록
	관청농부집 이집	10수 대상 > 평어 비평 10건	5수 수록 > 비평 2건 수록
	관청농부집 삼집	5수 대상 > 주석 비평 5건	4수 수록 > 미평 미수록
계	20수 대상으로 21건의 비평		10수 대상으로 2건의 비평

주묵(朱墨)으로 적힌 여춘영의 비평은 ⓐ본 초집과 이집에 실려 있다. 초집에 실린 첫 번째 비평은 "譽而不嘲, 恐遜簡兮詩人"인데 이것은 한시가 아닌, 「관청농부집」 서문을 대상으로 적은 것이다. 삼집의 비평은 이윤신(李潤身), 윤흡(尹翕), 윤지철(尹持哲), 조종진(趙琮鎭) 등의 견해로서 ⓐ본을 처음 만들 때 시제 아래에 세주의 형태로 정리된 것이다. 추정컨대

22) 「否翁集」, 〈獨窩八咏〉·其一 미련은 "江湖樂事將誰及, 軒適于郊迭主盟"이고 "呂軒適居楊近, 趙于郊居新邨, 跨江上下, 詩筒相傳"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서파는 『見聞手錄』에서 "鄭海左範祖·呂軒適春永, 爲江湖上兩大詩壘"라 하여 여춘영을 정범조와 더불어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꼽았다.

23) 대부분의 인물자료에 조중진(1732-?)의 몰년은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坐集」에 수록된 〈途中謾思(是時趙于郊卒于加平)〉를 통해 1804년에 사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이 만들어지고 여춘영과 조중진이 비평을 가한 시기는 「관청농부집」의 하한 시기인 1798년 12월부터 조중진이 별세한 1804년 사이다.

ⓐ본 이전에 존재했던 시록이나 시첩에 적혀 있던 제 비평을 ⓐ본을 작성하며 일시에 옮겨 적었을 것이다.

여하튼 ⓐ본에 보이는 21항의 비평 가운데 ⓑ본에 수록된 것은 2항에 불과하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점은 ⓐ본에 없었던 비평이 ⓑ본에 다수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표10-『방편자구록』 수록 비평 개황

구분	ⓑ본 비평자	비평 항목 수	ⓔ본 수록
순유육집	尹瀹, 李永錫, 柳倣, 尹持哲	5건	×
영해집	尹持夏	1건	×
내귀집	尹持夏, 吳彦先, 曺錫正, 尹持範, 鄭祖榮	6건	2건
지학집	趙琮鎭, 鄭埏, 李濟弘	3건	2건
관청농부집			
비옹집	葆光, 朴基淳, 趙琮鎭, 趙重鎭, 尹持範, 李在寧, 李東甫, 肆蕩齋, 李嵩五	39건	33건

ⓑ본 「지학집」에 실린 3건의 비평은 ⓐ본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 가운데 2건이 ⓔ본에 수록되었다.[24] 쌍행의 주석으로 정리된 형태로 보아 「순유육집」과 「영해집」, 「내귀집」에 실린 12건의 비평도 「지학집」의 비평과 동시에 정리되었을 것이다. 「지학집」까지의 비평은 추후 구록을 엮을 때 상당수가 누락된 반면, 「비옹집」에 가해진 39건의 비평은 6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록되었다. 「알음집(遏音集)」 이하 9개의 시록에는 더 이상 타인의 비평이 보이지 않는다.

Ⅲ. 「문록」 이본의 계통과 특징

서파는 자신의 한시집을 '구록'이라 명명한 반면, 산문집에는 '문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여기에는 논변류, 서발류, 비지류, 애제류 등의 전통적 산문 문체가 포함된다. 서파는 1797년(정조 21, 24세)에 저술한

24) ⓑ본 「지학집」 〈騎牛〉에는 李濟弘이 가한 "李士毅曰, 月巖有'春日其遲遲'之句, 此詩當不讓. ○工夫之夫音扶, 非夫之夫如字"가 실려 있는데, ⓓ본 이하에는 비평문의 전후 글자가 뒤바뀌어 의미구조를 이루지 못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본 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화산산거사(華山山居辭)〉를 시작으로 사망하기 한 해 전인 1836년(헌종 2, 65세)에 찬술한 〈갱서길광구(更序吉光裘)〉에 이르기까지 300편에 육박하는 산문을 남겼고, 이것을 작성 시기에 따라 친필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추후에 증손의 주도로 문집 간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사본이 만들어졌다.

1. 이본 현황과 계통

장서각에 기탁된 『문통』 중에서 문록은 총 8책이다. 표11에 표시된 서명은 권수의 기록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 가운데 ⓐ본은 서파가 손수 교정한 친필본으로 두 번째 책만 현전한다. ⓑ본은 ⓐ본을 원고지에 옮겨 적은 것인데, 본문뿐만 아니라 권차 표시까지 그대로 전사했다. 구록의 경우처럼 ⓑ-1을 통해 일실된 ⓐ본 첫 번째 책의 내용과 구성을 유추할 수 있다.

표11-『방편자문록』 이본의 계통

1단계(ⓐ) 친필 교정본	2단계(ⓑ) 원고지 전사본	3단계(ⓒ) 산삭 반영본	4단계(ⓓ) 문체 분류본
	74-31 方便子文錄 卷之一 方便子文錄 卷之二	45-11 方便子文錄 文通卷之十七	74-17 方便子文錄 文通卷之十七
74-38 方便子文錄 卷之三	74-32 方便子文錄 卷之三	45-12 方便子文錄 文通卷之十八	74-30 方便子文錄 文通
		45-13 刪部 方便子文錄	

서파는 문집 간행을 염두에 두고 수록하거나 산삭할 작품을 ⓐ본에 표시해두었는데 이 지침을 반영하여 옮겨 적은 것이 ⓒ본이다. '표지'에 '산부(刪部)'라 적혀 있는 ⓒ-3은 ⓒ-1과 ⓒ-2에 실리지 못한 작품을 따로 정리한 책이다. 즉, ⓒ-1과 ⓒ-2는 산문 전체를 대상으로 가작을 엄선한 책인 셈이고, ⓒ-3(산부)에 실린 작품은 내용의 적의성과 문장의 공졸 등을 따져 간행 대상에서 제외된 것들이다.

1930년 8월, 증손 유근영은 ⓒ-2의 말미에 〈습문기입(拾文記入)〉을 추록(追錄)한 뒤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습문기입〉은 方便子가 저술한 〈언문지〉의 문장으로 추정되는데, 요즘 사람 權悳奎가 저술한 〈조선어문경위〉의 권두에 실려 있다.[25] 그러므로 불초 근영이 탈고한 원고의 뒷부분에 기입한다. 경오년 8월 25일 밤에 삼가 쓰다.[26]

증조의 저술을 빠짐없이 수습하여 문집에 수록하려는 후손의 노력이 엿보인다. 위 인용문을 통해 이 책(ⓒ본)이 '탈고(脫稿)' 단계에 도달한 정사본으로 1930년 8월 이전에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27] 그러나 최종본으로 여기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본의 첫 번째 책은 수록 작품이 문체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두 번째 책은 문체와는 무관하게 시기 순으로 차서되어 있기 때문이다.

ⓒ-3(산부)을 배제하고 나머지 ⓒ본을 옮겨 적은 것이 ⓓ본이다. ⓓ-1은 유근영이 추록한 〈승문기입〉이 실리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는 ⓒ-1과 동일하다. 반면 ⓓ-2는 ⓒ-2를 전사하되 문체별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 책의 문체 분류를 고려하지 않고, 분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문체 비정이 애매한 작품들을 뒷부분에 따로 뭉뚱그려 모아두었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 밖에 ⓒ본과 ⓓ본에 기입된 수정 사항이 모두 상이한 점, 수정 사항이 반영된 책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통해, 교정을 위해 여러 부본이 만들어졌으나 문집 간행 직전의 최종 정고본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각 책의 기본적인 형태 사항을 제시하면 표12와 같다.

친필 교정본(ⓐ)과 원고지 전사본(ⓑ)은 문록만 대상으로 권차를 정한 반면, 산삭 반영본(ⓒ)과 문체 분류본(ⓓ)은 간행 준비 과정에서 만들어진 탓에 『문통』의 전체 체재를 염두에 두고 권차를 매겼다. ⓓ-2에 권차가 없는 까닭은 구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고본 작성 지침을 확정하지

25) 權悳奎의 『朝鮮語文經緯』(京城廣文社, 1923)에는 서문을 대신하여 〈古人의 正音讚〉을 실었는데, 여기에는 鄭麟趾, 李瀷, 李匡師, 申景濬, 柳僖, 李圭景의 글이 차례대로 수록되어 있다.

26) "此〈拾文記入〉, 則疑是方便子所著〈諺文誌〉之文也, 而今人權公悳奎之所著〈朝鮮語文經緯〉之卷首有之. 故不肖近永記入于脫稿之末爾. 歲庚午(1930)仲秋念五夜謹書."

27) 이듬해인 1931년 11월, 屛山書院에서는 유근영의 부탁을 받고 영남의 여러 서원에 通文을 보내 『문통』 간행비용의 출연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밖에 유근영은 『문통』 간행을 위해 계를 조직하기도 하고, 여러 인물의 도움을 받으며 전사 작업을 주도하였다. 『文通秒手錄』에는 당시 전사를 담당했던 인물과 전사했던 책의 서명이 적혀 있고, 『文通寫稿時費用』에는 인찰지, 원고지, 붓 등 전사과정에서 소용된 물품과 비용 등이 정리되어 있으며, 『文通修契簿』에는 1939년에서 1946년까지 文通契에서 운용했던 금전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유근영은 1949년 5월, 간행의 염원을 이루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표12-『방편자문록』 이본의 개황

구분	표제	표지 우측 상단	권수제, 권차	비고
ⓐ-2 74-40	文通子文錄二		方便子文錄 卷之三	친필 교정본
ⓑ-1 74-31	文通	雜文騷賦一	方便子文錄 卷之一 方便子文錄 卷之二	원고지 전사본
ⓑ-2 74-32	文通	雜文騷賦二	方便子文錄 卷之三	원고지 전사본
ⓒ-1 45-11	文通	雜文騷賦	方便子文錄 文通 卷之十七	산삭 반영본
ⓒ-2 45-12	文通	雜文騷賦	方便子文錄 文通 卷之十八	산삭 반영본
ⓒ-3 45-13	文通	雜文騷賦 '刪部'	方便子文錄	刪部
ⓓ-1 74-17	文通 卷之十七	雜文騷賦一 '準'	方便子文錄 文通 卷之十七	문체 분류본
ⓓ-2 74-30	文通	雜文騷賦	方便子文錄 文通	문체 분류본

않는 채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2. 친필 교정본과 이본의 특징

1) 구성과 수록 작품 현황

전술한 것처럼 ⓐ-1은 현전하지 않지만 원고지본(ⓑ-1)을 통해 그 내용과 구성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1에 비해 6편이 더 늘어난 것은 산부(ⓒ-3)에 수록된 작품 때문이다. 산부에는 ⓑ-1에 보이지 않는 6편의 작품이 더 실려 있는데[28] 이 작품들은 여타 부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 점을 통해 ⓒ본을 작성할 때 ⓐ-1이 그 저본 중의 하나였고, 당시까지 ⓐ-1이 일실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1 중에는 '산부'에도 실리지 않고 ⓒ본과 ⓓ본에도 수록되지 않은 3편의 작품이 실려 있기도 하다.[29] ⓓ-1에는 ⓒ-1에 실리지 않은 〈변일학호학(辨日學湖學)〉 1편이 추가되어 있다. 이 작품은 ⓑ-1에만 수록되어 있어 ⓓ-1을 만들 때 ⓑ-1도 참조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2에는 135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초고나 수정고를 제외하면 131편이다.[30] ⓑ-2에 실린 작품은 ⓐ-2에 비해 4편이 더 빠져 127편이다. 누락된 4편은 작품의 80% 이상이 삭제된 〈장진주사(將進酒辭)〉[31], 내용상 문제의

28) 〈正統論一〉, 〈正統論二〉, 〈正統論三〉, 〈正統論四〉, 〈正統論五〉, 〈布衣李完峻 […] 同罪疏跋〉이다.

29) 〈棠山祈雨祭文〉, 〈記鄭泰章事〉, 〈女訓〉이다.

30) 135편 가운데 〈止庵李公墓誌銘〉, 〈祀火祖議〉, 〈實齋申尙書墓誌銘〉은 초고이고 〈實齋申尙書墓誌銘〉은 수정고인데, 이 글의 최종원고도 뒤에 수록되어 있다.

표13-『방편자문록』 수록 작품 수와 문체 구분

구분	문체 구분	작품 수	
《ⓐ-1》(친필 교정본)	《下同》	《164편》	
ⓑ-1(원고지 전사본)	騷辭賦 등 11항목	158편	
ⓒ-1(산삭 반영본)	(작품을 산삭하며 일부 문체 구분도 삭제)	119편[32]	
ⓓ-1(문체 분류본)	(작품을 산삭하며 일부 문체 구분도 삭제)	120편	
ⓐ-2(친필 교정본)	×	88	135
	後集	47	
ⓑ-2(원고지 전사본)	×	127	
ⓒ-2(산삭 반영본)	×	105	
ⓓ-2(문체 분류본)	(불완전한 문체 분류)	101	

소지가 있는 〈제부문(祭婦文)〉·〈제백씨문(祭伯氏文)〉, 문체상 「문록」이 아닌 「서독(書牘)」으로 옮겨야 할 〈여이월정장욱서(與李月汀章郁書)〉이다. ⓒ-2는 서파가 산삭 표시한 작품들과 〈재몽과송(再夢果訟)〉[33]을 싣지 않고, 원고지본 누락 작품 중에서 〈장진주사〉를 수록함으로써 105편이 되었다. ⓓ-2에서는 ⓒ-2에 실렸던 〈증이사위명오부일본서(贈李士緯明五赴日本序)〉, 〈기주신재화상(記周愼齋畵像)〉, 〈평창군노성산기우제문(平昌郡魯城山祈雨祭文)〉, 〈진천이씨사종곤제연경계권후설(鎭川李氏四從昆弟連庚稧卷後說)〉 등 4편이 빠져 101편이 되었는데 문체별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한 것으로 여겨진다.

ⓑ-1은 문체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소사부(騷辭賦), 잡문제문애사(雜文祭文哀詞), 잠명송찬축(箴銘頌贊祝), 여어(儷語), 장전기사(狀傳記事), 기(記), 서발독(序跋讀), 논(論), 책원설(策原說), 고변해(攷辨解), 잡저(雜著) 등이 그것이다.[34] 그런데 1802년(순조 2)에 지은 〈독천록각외사(讀天祿閣

표14-산부(ⓒ-3) 수록 작품 수와 문체 구분

구분	저본	문체 구분	작품 수
ⓒ-3 (刪部)	《ⓐ-1》	×	42
	ⓐ-2	×	26

31) 도8-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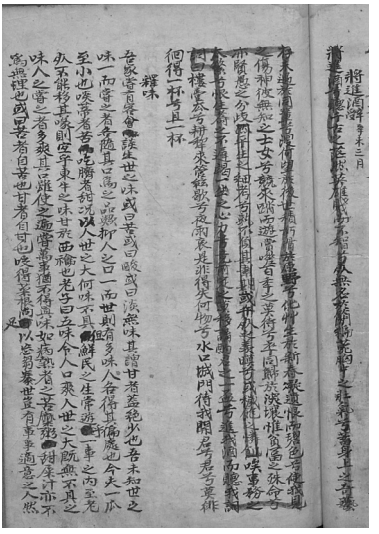
32) 柳近永이 추록한 〈拾文記入〉을 포함한다면 총 120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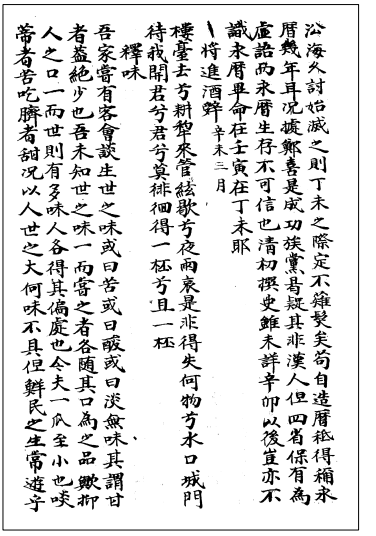
33) 이 작품에는 별도의 산삭 표시가 보이지 않는다.

34) 문체별 첫 번째 작품의 제목 아래에 세필의 주석으로 해당 문체를 명시했다. 〈華山山居辭三章〉(丁巳(1797)○以下騷辭賦); 〈招玉賈文〉(以下雜文祭文哀詞○丁巳); 〈主人在宅箴〉(以下箴銘頌贊祝); 〈壽母生朝祝辭〉(己未十二月初五日○以下儷語); 〈皇考家

外史)〉부터는 문체별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35] 전체 299편의 산문 중에 문체별로 편차된 작품은 114편에 불과한 것이다. ⓒ-1과 ⓓ-1의 경우는 서파가 산삭 표시했던 작품을 산삭하며 해당 작품에 주석의 형태로 적혀 있던 문체명도 함께 없앤 탓에 문체가 구분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36] 서파는 ⓐ-2를 전집(前集)과 후집(後集)으로 분절하려 했으나[37] 이것은 이후 반영되지 않았다.[38] ⓓ-2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문체 분류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

ⓐ본에 피력된 서파의 견해에 따라 산삭 작품만 따로 모아둔 것이 ⓒ-3(산부)이다. 《ⓐ-1》을 저본으로 하는 산부에는 〈정통론일〉, 〈정통론이〉, 〈정통론삼〉, 〈정통론사〉, 〈정통론오〉, 〈포의이완준 […] 동죄소발〉 등 6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작품들은 현전하는 다른 이본에 수록되지 않은 것이다(각주 주석 28) 참조. ⓐ-2를 저본으로 삼은 산부는 26편을 싣고 있다. 이 중에는 내용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부문〉·〈제백씨문〉,





沿海久討始滅之則丁未之際定不難髮矣苟自造曆秘得稱來曆幾年耳況擾鄭喜是成功挾黨昌疑其非漢人但四省保有為虛語而來曆生存不可信也清初撰史雖未詳卬以後宜亦不識來曆畢命在壬寅在丁未耶

丶將進酒辭 辛未三月

樓臺去芳辭聖來管絃歌芳夜兩衰是非得失何物芳水口城門

待我開君芳君芳莫徘徊得一杯芳且一杯

釋味

吾家嘗有客會談生世之味或曰苦或曰酸或曰淡無味其謂甘者益絶少也吾未知世之味一而嘗之者各隨其口為之品歟抑人之口一而世則有多味人各得其偏處也今夫一瓜至小也咳嘗者苦吃膵者甜況以人世之大何味不具但鮮民之生常遊宇

도8-ⓐ-2, 〈장진주사(將進酒辭)〉(辛未三月)　도9-ⓓ-2, 〈장진주사〉(辛未三月)

狀〉(以下狀傳記事); 〈遊海巖記〉(以下記; 〈送尹仲和赴海西序〉(以下序跋讀); 〈小學論〉(戊午○以下論); 〈闢天主學策〉(丙辰○以下策原說); 〈五伯攷〉(以下攷辨解), 〈釋蔽〉(壬戌○以下雜著).

35) 〈讀天祿閣外史〉의 제목 밑에 "壬戌以下, 不復分類"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36) 해당 작품은 '策原說'이 적혀 있던 〈闢天主學策〉과 '攷辨解'가 적혀 있던 〈五伯攷〉이다. "壬戌以下, 不復分類"가 적혀 있던 〈讀天祿閣外史〉도 산삭되었다.

37) 〈先妣淑人李氏家狀〉의 서미에 "此以下別爲後集"이라는 주석이 보인다.

38) 작품 수의 균형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서파가 산삭 표시를 하지 않은 〈재몽과송〉, 산삭 표시에 따라 산부에 실렸지만 ⓑ본-ⓓ본에 모두 수록된 〈기빈황마의(騎牝黃馬疑)〉가 포함되어 있다.

2) 수정과 산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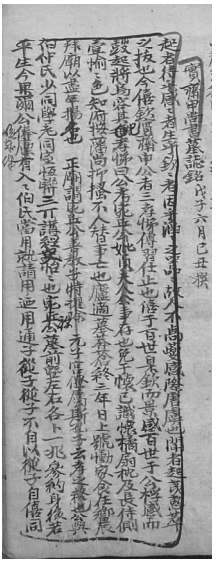
친필 교정본(ⓐ)에는 글자 옆이나 행간에 수정 사항을 기록한 곳이 상당수에 이르고,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줄을 긋거나 테두리를 쳐서 산삭을 표시했다. 첨가할 내용이 많을 때에는 첨지를 활용하거나 서미에 옮겨 적는 방식을 활용했고, 전편에 걸쳐 수정하고 싶을 때에는 다른 종이에 수정 내용을 새로 적은 뒤, 해당 면에 덧붙이기도 했다.

도10-ⓐ-2, 〈나선설(螺旋說)〉(上)과 서미의 첨가 사항(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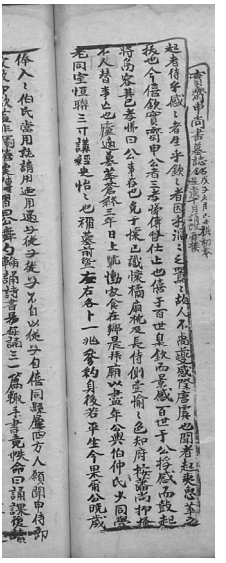
도10에 보이는 〈나선설(螺旋說)〉(1818년 작)은 시속에 만연한 복고(復古)의 풍조를 비판한 글이다. 서파가 서미에 적은 내용은 "'未已也'의 아래, '是知'의 위에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모두 나선 가운데

있어 가면 갈수록 점점 변하니 그 시작과 끝의 한계를 볼 수 없다'라는 24글자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未已也'之下, '是知'之上, 當有'古人今人都在螺旋之中, 漸往漸變, 不可見其有終始之限焉'二十四字)"이다. 나중에 다시 '其'자와 '焉'자를 지운 뒤 '二十四'를 '二十二'로 수정했다. 서파가 추가하고 수정한 것은 전후 문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불필요한 글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심의 흔적임에 틀림없다. 물론 위 수정 사항은 이후 전사본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새로운 표현을 첨가할 경우, 삽입되는 문장의 자수(字數)까지 적는 습관은 그의 주도면밀한 성향을 여실히 보여준다.[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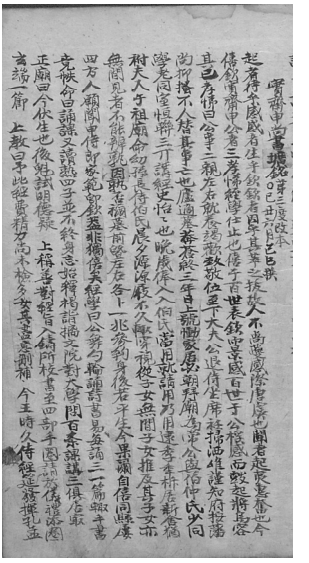
서파는 1828년 6월에 실재(實齋) 신현(申絢, 1764-1827)의 묘지명을 찬술하며 효제(孝悌)와 경학(經學), 사지(仕止)를 중심으로 그의 생평을 기술하였다. 도11-도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에는 초고본과 개수본(改修本), 최종본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초고본과 개수본에는 'ㄱ' 표시와 외곽선으로 산삭할 작품임을 명시했는데, 제목 아래에 "무자년 6월 기축일에 찬술했다(戊子六月己丑撰)"와 "무자년 6월 기축일에 초본을 찬술했고 동년 10월에 개수(改修)를 청하기에 다시 찬술했다(戊子六月己丑撰初本,



도11-ⓐ-2, 〈실재신상서묘지명(實齋申尙書墓誌銘)〉【초고본】



도12-ⓐ-2, 〈실재신상서묘지명〉【개수본】



도13-ⓐ-2, 〈실재신상서광명(實齋申尙書壙銘)〉【최종본】

39) ⓐ-2, 〈盜俠敍〉(1812년 作)에서도 동일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是歲十月請改再撰)"라는 주석이 각각 달려 있다. 최종본은 종잇조각을 오려 붙여 제목의 '墓誌銘'을 '墓壙銘'으로 바꾸었고, "3차 개수본이다. ○기축년 6월 기사일에 찬술했다(第三度改本○己丑六月己巳撰)"라는 주석을 달았으며, 본문에도 여러 곳에 수정을 가했다. 이처럼 수정을 거듭한 것은 신현의 유족이 요청했기 때문이나[40], 세 단계의 묘지명을 통해 서파의 산문 찬술과정의 실제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다른 작품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1811년에 찬술한 〈지암이공묘지명(止庵李公墓誌銘)〉에는 위와 동일한 산삭 표시와 함께 "改撰本은 뒤에 있다(改撰在後)", "'童也'의 '也'자를 正本에서는 뺐다(童也之也字正本刪)", "'戒以'의 '以'자를 정본에서는 뺐다(戒以之以字正本刪)" 등이 서미에 적혀 있다. 그리고 무려 17년이 지난 1828년에 전폭적인 개수를 거쳐 최종본을 완성했고, 제목을 〈자서이지암묘지명(姊婿李止庵墓誌銘)〉으로 수정했다.[41] 1833년에 찬술한 〈사화조의(祀火祖議)〉도 1822년에 지은 것을 대폭 수정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있다.[42] 이처럼 ⓐ-2에는 최종본 이전에 만들어졌던 초고본과 개수본이 함께 남아 있는 경우도 있거니와 매 단계의 작품마다 다양한 층위의 수정이 저자의 육필로 씌어져 있다. 바로 이 점이 『문통』 초고본의 학술적 가치가 배가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3) 수정과 산삭의 배경

통상 시문(詩文)을 부단히 수정하는 이유는 형식과 내용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함이고, 해당 작품에 구현된 형식과 내용의 균제미는 시문 선발과 산삭의 기준이 된다. 『문통』 초고를 살펴보면 수정 혹은 산삭의 배경과 관련된 몇 가지 이채로운 점이 발견된다.

친필 교정본 『독사만필(讀史漫筆)』(74-45)은 풍부한 문헌적 근거를 토대로 중국 사서(史書)의 오류를 질정하고 자신의 역사적 견해를 개진한 책이다. 이 책의 초고본에도 적잖은 양이 수정되었는데, 관우(關羽)의 죽음에 대해 기술한 조목에서 서파는 2줄 이상을 삭제한 뒤 해당 부분의 서미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

40) 2차 개수본 주석에 '請改'라는 표현이 보인다.

41) 제목 아래에 "戊子六月丙戌撰"이라는 주석이 보인다.

42) "'牖戶'下, 當增'資炭引硝, 以爲舟車, 器械機關'"를 첨지에 써서 작품 후반부의 서미에 붙여두었다.

도14-『독사만필(讀史漫筆)』(74-45) 中

'盖其'부터 '是以'까지의 예순네 글자는 母夫人의 명을 받들어 삭제했다.[43]

삭제된 부분은 제갈량이 유비의 막하로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이 그를 신명처럼 공경했으나 오직 관우가 오시(傲視)하며 복종하지 않자 제갈량은 관우를 백안시했고 일인자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 관우를 제거할 생각까지 품었다는 내용이다. 그 내용의 정합성은 차치하더라도 모친의 말에 따라 산삭을 가했다는 사실은 사주당이씨(師朱堂李氏)의 학문적 조예와 서파의 저술에 드리운 사주당이씨의 영향력에 대해 일정한 시사점을 준다.

서파는 1814년에 배위 전주이씨(全州李氏)와 이복형 흔(侃)의 상을 연거푸 당하자, 〈제부문〉과 〈제백씨문〉을 지어 이들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런데 두 작품의 제목 위에 산삭 표시('×')를 가했고, 첨지를 오려 붙여 제목을 가렸으며, 필사된 종이의 접힌 부분을 찢어내어 반대 방향으로 접은 뒤 '절대 열어 보지 말 것(要勿開視)'이라 써두었다. 그 이유는 망자를 위해 애통함을 극진히 표출해야 하는 애제체(哀祭體) 산문임에도 불구하고[44], 원망과 회한의 감정을 문면에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

43) "'盖其'至'是以'六十四字, 承母夫人命, 刪去."

44) 『文心雕龍』 권3, 「哀弔第十三」. "夫哀辭大體, 情主於痛傷, 而辭窮乎愛惜."

도15-ⓐ-2, 〈제부문(祭婦文)〉(全州李氏)

도16-ⓐ-2, 〈제백씨문(祭伯氏文)〉(通仕郎 公諱侃)

예컨대 서파는 〈제부문〉 전반부에서 "경술년(1790)에 우리가 혼인한 것은 어울리는 짝으로서 배필이 된 것이 아니니, 그대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요(庚戌之遇, 非所匹而匹者, 靈固已知之矣)"라 말한 뒤 처가와의 갈등, 모친을 끝까지 봉양하지 않은 부인의 잘못, 부인을 친정으로 내쫓는 장면, 아들을 낳지 못해 첩을 들인 사연 등을 기술했고, 두 사람의 만남을 '불길한 인연(因緣之不吉)'과 '어그러진 인륜(人倫之末失)'으로 설명했다. 이복형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에서도 "임인년(1782)과 계묘년(1783) 즈음에 여러 집안이 모두 장자(長子)의 상을 당한 데다가 전염병과 기근까지 더해졌거늘, 전장(田庄)은 어찌하여 남김없이 팔아치웠고 혈육은 어찌하여 흩어지게 하였소! 이것은 형께서 직분을 다하지 못해 그런 것이요"[45]라 술회하며 원망과 회한의 속내를 내비쳤다. 이처럼 문체적 제약이나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할 수 있는 것이 서파 문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46] 만약 전사본 문록만 현전한다면 서파의 삶과 문학의 미세한 결을 간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45) "壬癸之際, 諸家俱遭長子之喪, 加之以疫癘飢饉, 庄土焉賣盡, 骨肉焉散盡. 此則我兄之處事有所不盡分而然也."

46) 〈晋州柳氏世譜序〉에도 지면을 접은 뒤 "要勿開視"라 기록한 부분이 있다.

Ⅳ. 『문통』 전체 구성에 대한 시론

『문통』에는 서파의 친필 교정본과 간행 준비 과정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부본 및 교정본이 뒤섞여 있다. 전체 구성과 기술방식에 관한 범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여러 본을 전사했기 때문에 서파나 유근영이 착안했던 문통의 구성을 추론하기가 용이치 않다.[47] 일단 표제, 권수제 및 권차

표15-『문통』의 개황과 전체 구성(안)

차례	MF 번호	표제	권수제 / 권차	수록 내용
❶				
❷				
3	13455-1■	文通三		禮記集說補說 周禮鄭註補說
	11923-40	文通三之附卷上		儀禮註疏補說
	13455-2■	文通三之附卷		三禮同異考
❹				
5	11920-3	文通	方便子文通卷之五	詩物名考
	13455-4■	文通五		讀詩三百 書蔡傳補說
6	13455-5■	文通六		論語集註補說 孟子集注補說 孝經刊誤發揮 大學章句發明 大學章句補說 中庸章句補說
7	13455-6■	文通卷之七		素問王註補校正 葺註箋說明實 論春秋繁露附 春秋吳粵策傳
	13459-45■	文通七之附	方便子 語錄 卷之五	讀史漫筆 “方便子 語錄 卷之五終”
8	13455-8■	文通卷之八		觀象志 周髀經章句釋 律呂新書摘解 樂律管見辨 附

47)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국학자료실에는 제3책부터 제6책까지, 총 4책의 『문통』이 소장되어 있다. 유근영이 정인보에게 『문통』의 편차를 부탁하며 건네준 전사본으로 여겨진다. 제3책은 권13-권18, 제4책은 권19-권24, 제5책은 권25-권29, 제6책은 권30-권37로 각각 구성된다. 이 책에 적힌 권차는 정인보가 친필로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권별 · 책별 분류와 편차의 기준이 분명치 않은 탓에 유사한 성격의 저술들이 떨어져 차서되었고 서파의 애초 의도를 십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9	13455-9■	文通卷之九		困得篇辨辨解 聞見隨錄
10	13455-10■	文通卷之十		禮制類 律樂類 文義類 孔雀東南飛行批解
	13457-27■	類錄十之附卷	方便子纂文通卷之十	化理類 書字類 萬物類 醫藥類: 본문 無 雜術類
	11922-29	文通		醫藥類 丹學類 雜術類
11	13456-11■	文通卷之十一	方便子纂文通卷之十一	禮疑往覆
12	13456-12■	文通卷之十二	方便子書牘	
13	13456-13■	文通卷之十三	方便子書牘 卷之二	
14	13456-14■	文通十四		二至山答
14	13456-15■	文通卷之十四	方便子句錄卷之一 方便子句錄 卷之二 方便子句錄 卷之三 方便子句錄 卷之四 方便子句錄 卷之五 方便子句錄 卷之六	旬有六集, 嶺海集, 來歸集 志學集, 觀靑農夫集, 否翁集 遏音集, 坐集, 杏樹壇集
15	11923-44	【文通卷之十五】	【文通詩錄】	聚辨堂集, 丹邱處士集 一轉丹集
16	13456-16■	文通卷之十六	文通詩錄	成歌集, 易名集, 南嶽集
17	13458-31	文通卷之十七	方便子文錄文通卷之十七	雜文, 騷賦
18	11921-12	文通	方便子文錄文通卷之十八	雜文, 騷賦
19	11923-41	文通	卷之十九	小學集註補說
20	13456-18■	文通卷之二十		經詁類證 易詁, 書詁, 詩詁, 儀禮詁
21	13456-19■	文通卷之二十一	※ 표지 뒷면 諸經詁訓(권6, 21, 24) → '西陂先生經解'	經詁類證 周禮詁, 禮記詁, 春秋詁 論語詁, 孝經詁, 中庸詁 大學詁, 孟子詁, 宋詁附
22	13457-20■	文通卷之二十二		古聖逸語傳 量田議
	13457-21■	文通卷之二十二之附卷	文通	歷代正朔考 夏小正經傳音義
23	11923-35	文通二十三	文通	易際數
24	11921-21	文通	方便子纂文通卷之二十四	貽孫篇
	13457-22■	文通卷之二十四	文通	孝經古文文考 孝經刊誤發揮
	13459-39■	표지 無	方便子文通外集	諺文志

등이 명시된 책만 대상으로 그 수록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 14와 같다.[48] 표 안의 권차에는 『문통』 권차와 하위분류 속의 권차가 혼효되어 있다.

우선 권차가 권1과 권2로 명시된 책은 보이지 않는다.

주목할 만한 점은 표제가 '文通七之附'라고 씌어 있는 책(⑦)에 친필본 『독사만필』이 수록되어 있고, '方便子語錄卷之五'와 '方便子語錄卷之五終'이라는 권수제와 주기 사항이 적혀 있다는 것이다. '語錄卷之五'의 '五'는 '어록(語錄)' 안에서의 권차가 분명한바, 일단 권3부터 권7까지는 '어록'에 포함되고, 권9에 실린 『문견수록(聞見隨錄)』과 『독사만필』과의 문체적 유사성을 고려한다면 '어록'의 범주는 권9까지로 여겨진다. 그리고 권4에는 도표에 실리지 않은 『고공기보설(考工記補說)』이 편차되는 게 합당하다. 전후에 걸쳐 '…… 補說'이라는 서명이 나타나거니와 본래 『고공기』는 『주례』의 편명이므로 권3의 삼례(三禮)와 조응을 이루기 때문이다. '어록'은 기본적으로 경사자집(經史子集) 가운데 경(經)-사(史)-자(子)로 구분되고, 경은 삼례-삼경(三經)-사서(四書)로 구분된다.[49]

권10에 해당하는 전적은 세 책인데 두 번째 책의 표지에 '類錄十之附卷'이라 적혀 있다. 세 책에 포함된 예제류(禮制類), 율락류(律樂類), 문의류(文義類)부터 의약류(醫藥類), 단학류(丹學類), 잡술류(雜術類)까지는 '유록(類錄)'에 수렴되는 것이 분명하다. 권11과 권14는 서찰을 주고받으며 예법과 풍수를 논한 것이고, 권13과 권14는 권수제에서 밝혔듯이 '서독(書牘)'을 싣고 있다. 네 종의 책은 서찰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니므로 '서독'으로 분류할 수 있다.[50]

시편을 수록한 권14부터 권16까지는 '구록'에 포함되고, 산문을 실은 권17과 권18은 '문록'에 포함된다. 1차 친필 교정본 「구록」에 수록된 〈관촌중현등(觀村中懸燈)〉에는 "초8일에 지었다. ○초6일에 지은 〈농부청담(農夫淸談)〉은 '어록'에 실려 있고 초7일에 지은 〈농난부(農難賦)〉는 '문록'에 실려 있기 때문에 본권에서는 모두 삭제했다"라는 주석이 달려

48) '■' 표시는 서파의 친필본을 가리킨다.

49) 서파는 경전을 대상으로 중요 주석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충하고 부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학문적 열정과 박학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考工記圖補說』. "僖於古經, 每依一大注, 補之爲說. 周禮亦於鄭注, 略補之. 今得此書(필자주: 考工記圖)於杏亭徐敎官, 徐邃曆律禮制之學, 使僖措筆逐節, 以便考據. 僖方在客, 歸期迫近, 五宵燭下, 忙閱胡草. 雖曰, 弊帚幾致白首之勞, 觀者幸勿覆瓿也."

50) 「문록」 친필 수정본(ⓐ-1)에 실린 〈與李月汀章郁書〉에는 "在書牘中"이라는 주석이 보인다.

있다.[51] 이 주석에 의하면 1차 친필 교정본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다른 형태의 작품집이 존재했고 그 작품집에는 상이한 문체의 작품들이 시기순으로 차제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친필 교정본을 엮는 과정에서 문체와 내용 등을 감안하여 새로 편차한 것이다.[52] 권3에서 권16까지의 분류 기준 가운데 적어도 '어록'과 '서독', '구록', '문록'은 이미 이른 시기에 서파 스스로 구상하고 있던 분류체계였다.[53]

권19의 『소학집주보설(小學集註補說)』은 어록으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형태적 유사성을 고려한다면 『논어집주보설(論語集註補說)』, 『맹자집주보설(孟子集注補說)』, 『대학장구보설(大學章句補說)』, 『중용장구보설(中庸章句補說)』이 실린 권6 경부(經部)에 해당되고, 전통적인 사부분류법에 의거한다면 권8-권9의 자부(子部)에 해당될 것이다.

권20과 권21의 『경고유증(經詁類證)』, 권24의 『효경고문문고(孝經古文文考)』, 권차가 표시되지 않은 『상서금고문송의(尙書今古文訟疑)』는 '훈고류(訓詁類)'라는 항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편차할 수 있다. 권21의 표지 이면에는 몇 행의 메모가 적혀 있다. 유근영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내용은 "여러 경전의 훈고는 모두 단독으로 엮일 수 있거니와 『문통』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차제를 둔 것은 아니다. 지금 권6과 권21, 권24 등 세 책은 비록 『문통』 속에 있지만 몇 책이 낙질본이고 여러 저작이 단독으로 엮일 수 있으니, 옮겨 적는 자들은 그 제첨(題簽)에 '西陂先生經解'라 쓰고 그 제본에 따라 1, 2, 3의 차제를 쓰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다"[54]이다. 만약 이 기록에 따라 권6의 사서(四書)에 관한 저술을 독립시킨다면, '어록'에 구현된 경(經)-사(史)-자(子)와 '경부'에 구현된 삼례-삼경-사서의 체재가 무너진다. 게다가 경전의 의미를 밝히는 것과 훈고학은 그 성격이 변별되므로 『경고유증』(권20, 권21)과 『효경고문문고』(권24),

---

51) "初八日○初六日〈農夫淸談〉載在語錄, 初七日〈農難賦〉載在文錄, 故此卷, 則俱刪去."

52) 1차 친필 교정본에 실린 〈登太華山〉의 주석 "十四日○〈天詰〉·〈心誓〉兩賦俱載在文錄", 〈臥病〉의 주석 "二十日○十七日〈逍遙谷銘〉載在文錄", 〈雨後贈尹仲和〉의 주석 "二十六日○二十五日〈江西宗派譜贊〉載在文錄" 등을 그 실례로 들 수 있다.

53) 李守默의 〈旬有六集序〉(『방편자구록』, 「旬有六集」)에 "旬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절로 된 말 중에 운이 있는 것으로 시구를 얻을 때마다 기록했으므로 구록이라고 명명했다. 이 밖에 다른 기록은 없는가? 文錄과 語錄이 있다(旬錄者何? 旬語之有韻者, 隨得輒錄, 故曰旬錄. 舍是無錄乎? 曰有文錄·語錄矣)"가 보인다.

54) "諸經詁訓, 皆可單行, 非文通一書聯絡而有次第也. 今此六, 二十一, 二十四三册, 雖在文通, 册數爲殘帙, 而諸作可以單行, 則謄者當題其簽曰, '西陂先生經解', 而隨其製册, 書其一二三之第, 固宜."

『상서금고문송의』만 별도로 '훈고류'에 묶는 것이 온당할 것 같다.

권22와 권23은 양전(量田)과 역법(曆法), 시령(時令), 역수(易數) 등에 관한 저술로서 권8의 천문(天文), 산법(算法), 악률(樂律) 등과 분류적 연계성을 지니므로 어록의 자부(子部)에 편차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권24의 『이손편(貽孫篇)』은 주충(主忠), 무본(務本), 귀후(歸厚), 어가(御家), 위기(爲己), 문학(問學), 간록(干祿) 등 선비의 덕목, 처세, 일상 등에 관해 후손에게 전하는 글이다. 사부 분류체계를 염두에 두고 『견문수록(見聞隨錄)』과의 문체적 유사성을 고려한다면 이 책도 어록의 자부에 포함될 것이다.

표14의 끝에 보이는 『언문지(諺文誌)』는 표지가 떨어져 나갔는데 본문 첫째 장에 '方便子文通外集'이라 적혀 있다. 본인이 구상한 분류체계에 수렴되지 못하는 저술을 위해 서파 스스로 설정한 항목이 '외집(外集)'인 것이다. 따라서 『물명고(物名攷)』의 경우처럼 이상의 분류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저술은 '외집'에 포함시키는 것도 타당한 방법일 것이다.

이 밖에 권차가 매겨지지 않은 『춘추괄례분류(春秋括例分類)』, 『춘추사전산오설(春秋四傳刪誤說)』, 『춘추대지(春秋大旨)』, 『춘추경문고이(春秋經文考異)』, 『춘추삼전주보설(春秋三傳註補說)』 등의 『춘추』 관련 전적은 권7에 수록해도 무방하리라 여겨진다.

끝으로 필자의 억측으로는 권1과 권2가 『태교신기음의(胎教新記音義)』에 할당된 권차라고 생각한다. 『태교신기』는 서파의 모친 사주당의 저술인데, 서파가 장절(章節)을 구분하고 음의(音義)와 언해를 붙인 것이 『태교신기음의』이다. 번역문에 나오는 모든 한자에 언문으로 음을 달았고 다른 언해본과 마찬가지로 한 문장씩 떼어서 먼저 한글로 토를 달고 언문으로 옮기는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서파와 사주당의 공동 저술인 셈이다. 모친이 서파에게 드리운 학문적·정서적 영향력, 모친에 대한 서파의 존숭의 뜻, 『태교신기음의』의 구성과 분량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가설이라 여겨진다. 정인보가 서파의 저술 서목 중에서 『태교신기음의』를 보았고[55] 유근영을 통해 서파의 친필본 『태교신기음의』를 열람했다는 기록[56], 서파전서(西陂全書)의 간행을 도

55) 『胎教新記』, 〈胎教新記音義序略〉. "始寅普閱西陂柳先生僖所著書目, 有曰胎教新記音義."

56) 『胎教新記』, 〈胎教新記音義序略〉. "今年抄冬, 德永從父弟近永, 自嶺之醴泉, 千里相訪, 出一編, 則先生手書胎教新記音義也."

표15-『문통』의 구성(안)과 분류체계

				胎教新記音義
문통	語錄	經部	三禮	권3-권4
			三經	권5
			四書	권6
		史部	역사	권7
		子部	天文, 算法, 樂律 등	권8-권9, 권22, 권23, 권24(胎孫篇)
	類錄		유서	권10
	書牘	集部	간찰	권11-권14
	句錄		한시	권14-권16
	文錄		산문	권17-권18
	《訓詁》		훈고	권20-권21, 권24(孝經古文文考 등)
	外集		주요 작품 이외	諺文志, 物名攷

모하던 유근영이 가장 먼저 출간한 책이 『태교신기음의』라는 기록[57] 등은 필자의 우견에 힘을 실어준다.

『문통』 전체 구성에 대한 필자의 시론을 정리하면 표16과 같다.

Ⅴ. 맺음말

서파의 학술적 성취와 『문통』의 가치는 정인보에 의해 본격적으로 조명을 받았으나 『문통』의 존재 자체가 묘연했던 탓에 한정된 분야에서만 주목을 받아왔다. 2000년대 초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문통』이 기탁된 후,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으며 수많은 연구 성과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전적의 초고본과 교정본, 전사본 등이 뒤섞여 있고 그 체재가 정연하지 않은 상태이며 난삽한 필체로 어지럽게 적힌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므로 정작 중요한 학술적 코드를 무수히 담고 있는 서파의 친필본이 배제된 채 불완전한 형태의 전사본이 주로 연구의 저본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구록(句錄)」과 「문록(文錄)」을 중심으로 이본의 계통과 특징을 고찰한 뒤, 『문통』 전체 구성에 대한 시론을 시도해보았다.

장서각에 기탁된 『문통』 중에 구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총 12책이

57) 『胎教新記』, 〈胎教新記音義序略〉. "近永志刊先生全書, 首事是書."

다. 각 책의 크기와 지질, 서체와 묵적, 작품의 차제, 수록 내용과 기간, 시편의 교정과 반영 여부, 작품의 산삭과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12책의 구록을 5단계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서파의 1·2차 친필 교정본은 그의 문학적 지향점, 한시의 원형과 특징, 창작의 실제를 연구하는 데 매우 유효한 자료이다. 특히 시단의 맹주로 활약한 인물을 위시하여 수많은 인사의 평어 비평과 평점 비평을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만들어진 전사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한시를 싣고 있어 친필 교정본의 가치와 중요성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300편에 육박하는 산문이 실려 있는 서파의 문록은 총 8책으로 친필 교정본, 원고지 전사본, 산삭 반영본, 문체 분류본 등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구록의 경우처럼 문록의 친필 교정본에도 작품의 완성도를 제고할 요량으로 부단히 자구를 수정한 흔적이 오롯이 남아 있다. 특히 육필 교정의 흔적이 낭자한 초고본과 개수본, 최종본이 모두 남아 있는 작품도 여러 편에 이르기 때문에 친필 교정본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서파의 산문 연구에 필수적이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산삭된 작품을 통해 문체적 제약이나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했던 서파 문학의 중요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서파의 친필 교정본을 중심으로 각 책에 적힌 표제, 권차, 하위분류 기록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서파가 『문통』을 어록(語錄)-유록(類錄)-서독(書牘)-구록(句錄)-문록(文錄)-외집(外集)으로 구성하려 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어록은 경(經)-사(史)-자(子)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는데, 경은 삼례(三禮)-삼경(三經)-사서(四書)로 구분된다. 예제류(禮制類), 율락류(律樂類), 문의류(文義類), 의약류(醫藥類), 단학류(丹學類), 잡술류(雜術類) 등은 모두 유록에 수렴되고, 서찰 형식으로 이루어진 글은 '서독'에 해당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시와 산문은 각각 구록과 문록으로 분류되고, 위의 분류체계에 수렴되기 어려운 저술은 외집에 포함시킨다. 이상에서 사용한 분류 기준은 모두 서파가 직접 언급한 용어이다. 유근영과 정인보의 기술, 저술의 성격 등을 착안했을 때 어록 앞에 차제될 두 책은 『태교신기음의』로 여겨지거니와 훈고류(訓詁類)에 해당하는 서책은 별도로 훈고(訓詁)라는 분류체계로 묶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참 고 문 헌

김근태,『서파 유희의 시문학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박용만,「유희의 문학사상과 시세계에 대한 고찰」.『진단학보』제118호, 진단학회, 2013.

師朱堂李氏,『胎教新記大全』.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심경호,「유희의 시문 문집과 그 정신세계」. 한국학중앙연구원 편,『진주유씨 서파유희전서 II』, 2008.

_____,「유희의 문학과 학문에 드러난 '求是求眞' 경향」.『진단학보』제118호, 진단학회, 2013.

유희,『문통』1차 기탁본(74종 74책) 및 2차 기탁본(45종 45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___,『문통』정인보 편차본.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국학자료실 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편,『진주유씨 서파유희전서 I』, 2007.

_____,『진주유씨 서파유희전서 II』, 2008.

국 문 요 약

과거에는 개인 문집을 간행할 때 자료 수집과 편차 이외에 산삭과 교정에도 적잖은 공력을 기울였다. 판각과 인행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탓에 최대한 작품 수를 줄여 그 비용을 최소화하고, 가작을 정선함으로써 문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저자의 미세한 숨결과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누락되기도 하고, 혹은 저자의 관료적 · 학자적 삶을 부각시키고자 문학이나 일상, 신변에 관한 글을 고의로 배제했으며, 미묘한 정치적 사안에 연루될 소지가 있는 작품은 애초에 간행 대상에서 제외하기 일쑤였다. 이러한 연유로 초고본과 교정본, 간여본(刊餘本)이 주목을 받는 것이고, 저자의 친필본일 경우에는 학술적 가치가 배가된다.

서파(西陂) 유희(柳僖)의 한시집 「구록(句錄)」과 산문집 「문록(文錄)」의 경우는 서파의 친필 교정본뿐만 아니라 여러 종의 전사본까지 함께 남아 있다. 특히 친필 교정본에는 전사본에 누락된 많은 작품이 수록되어 있거니와 다양한 인물이 가한 문학 비평, 서파가 육필로 작성한 교정 내용, 산삭 배경에 관한 기술 등이 빼곡하게 실려 있어 서파 문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아울러 「구록」과 「문록」 이외의 여타 저술도 대부분 여러 본의 친필 교정본과 전사본이 함께 전하고 있으므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면밀한 텍스트 교감이 선행되어야 함은 췌언의 여지가 없다.

서파의 『문통』은 19세기를 대표하는 백과전서적 저서로서 조선 후기 실학사를 심화하고 그 외연을 확장하는 데 필수적인 문헌이다. 서파 자신도 생전에 본인 저술의 편차까지는 완성하지 못했고, 영남유림의 도움을 받으며 『문통』 간행에 주력했던 증손 유근영(柳根永)도 결국 전체 체재를 확정하지 못했다. 서파가 구축한 백과적 지식세계와 학문적 스펙트럼을 일시에 포괄하는 분류체계를 마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서파가 언급한 용어를 활용하여 어록(語錄)-유록(類錄)-서독(書牘)-구록(句錄)-문록(文錄)-외집(外集)이라는 분류 기준을 설정하여 각개 저술을 포함시켰고, 훈고(訓詁)라는 분류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여 훈고류 전적을 따로 묶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사주당이 서파에게 드리운 학문적 · 정서적 영향력, 모친에 대한 서파의 존중의 뜻, 유근영과

정인보의 기술, 저술의 성격과 분량 등에 착안하여 서파가 『태교신기음의』를 『문통』의 첫머리에 두려했다는 점을 가설로써 제기하였다.

투고일 2014. 6. 23.
심사일 2014. 7. 28.
게재 확정일 2014. 8. 28.
주제어(keyword) 유희(Yu, Hui), 문통(*Muntong*), 구록(*Gurok*), 문록(*Munrok*), 친필교정본(autograph revised manuscript), 분류기준(classification criteria), 계통(version)

Abstracts

A Study of the System of *Muntong*(文通) with a Close Examination of *Gurok*(句錄) and *Munrok*(文錄)

Kim, Deok-su

When an author published an anthology of his/her writings in the past, as much consideration was given to editing and proofreading as to gathering of materials and organization of the compilation. It was to minimize the number of works included in the collection and thus minimize the cost of publication, for producing a woodcut for printing and publishing were a costly endeavor. The editing and proofreading processes also helped achieve high level of quality by allowing a careful selection of finest works. Often during these processes, materials that reveal the author's intimate voice or personal inclination were left out. Literary works as well as works dealing with the author's daily life or personal affairs were often excluded intentionally in order to highlight the bureaucratic and scholarly side of the author. Works that could implicate the author in sensitive political issues were commonly removed from consideration for publication. Therefore, the author's first draft, revised draft as well as the manuscript of left-out writings attract attention from researchers. Especially, the autograph copy of the author has a greater academic value.

In the case of Seopa Yu Hui's anthology of Chinese poetry *Gurok* and essay collection *Munrok*, several hand-scribed copies as well as the autograph revised manuscript have survived. Especially, the latter includes many works that are omitted in other manuscripts. It also contains literary critique contributed by many individuals, proofreading and revision comments in Seopa's own handwriting, and description of why certain editing choices were made, thus providing important insights for understanding Seopa's literature. In addition to *Gurok* and *Munrok*, most of other works are accompanied by several copies of autograph revised draft and manuscripts. Thus, needless to say, a close cross-reference of all manuscripts should precede the full-fledged study.

The *Muntong* authored by Seopa is an encyclopedic compilation of writings representative of the 19th century; it is an essential literature for deepening the history of Silhak and extending its denotation. Seopa himself could not complete cataloging of his writings; his great-grandson Yu Geunyeong, who, with the help from Confucian scholars of Yeongnam region, devoted himself to the publication of Muntong, could not finalize its format. It is because to devise a classification system encompassing the world of encyclopedic knowledge Seopa built and the wide academic spectrum that the anthology covers was such a difficult task. For that reason, I adopted the terminology mentioned by Seopa and developed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criteria for grouping Seopa's writings: *Eorok*, *Yurok*, *Seodok*, *Gurok*, *Munrok*, and *Oejib*.

In addition, the author created a separate *Hungo* category to group Seopa's exegetical writings.